Piano Concerto No. 5 in E♭ major, Op. 73 "Emperor"

- □□

정보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No. 5 in E♭ major, Op. 73 "Emperor"
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작곡 시기: 1808년 말 스케치 시작, 1809년 본격 작곡, 1810년 상반기 수정
헌정: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대공
알려진 최초 공연: 1811년 1월 13일 빈 로브코비츠 궁의 비공개 음악회, 루돌프 대공 독주
최초로 확인된 공개 공연: 1811년 11월 28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독주, 요한 필리프 크리스티안 슐츠 지휘
빈 최초 공개 공연: 1812년 2월 12일 케른트너토어 극장, 카를 체르니 독주
기준 판본: Ludwig van Beethoven, Werke, Abteilung III, Band 3, Hans-Werner Küthen 편집 (G. Henle Verlag, 1996)

IMSLP: Piano Concerto No.5, Op.73 (Beethoven, Ludwig van)

Wikipedia: Piano Concerto No. 5 (Beethoven)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Piano Concerto No. 5 in E♭ major, Op. 73은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세 악장 협주곡이며 , 베토벤이 완성한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이다 . 악장은 Allegro – Adagio un poco moto – Rondo. Allegro, ma non troppo 순서이고, 둘째 악장과 셋째 악장은 중단 없이 이어진다. 통용되는 "Emperor" 라는 별칭은 베토벤이 붙인 제목이 아니다.

베토벤은 1808년 말 이 작품의 스케치를 시작해 1809년에 대부분을 작곡하고 1810년 상반기까지 고쳤다. 이 시기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전쟁, 프랑스군의 빈 포격과 점령이 겹쳤다. 베토벤이 1809년 7월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는 점령 아래 악화된 생활과 재정 사정이 기록되어 있고, 자필 총보의 둘째 악장 시작 부근에는 나폴레옹을 겨냥한 메모도 남아 있다. 다만 이러한 문헌은 작곡 환경을 보여 줄 뿐, 작품의 리듬과 음향이
전쟁을 직접 묘사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자필 총보는 베를린 국립도서관에 Mus. ms. autogr. Beethoven, L. v. 15 라는 청구기호로 보존되어 있다. 베토벤은 1810년 8월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에 보낸 편지에서 작품 73을 제자이자 후원자인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하겠다고 직접 지정했다. 루돌프의 장서에서 나온 첫 악장 독주부 검토 필사본도 Beethoven-Haus Bonn에 남아 있어 헌정과 작품 전승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작품은 1810년 11월 런던의 클레멘티에서 먼저 파트로 출판되었다 .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판은 1811년 2월 이후 나왔고, 같은 해 5월에는 베토벤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인쇄가 뒤따랐다. 클레멘티판은 더 이른 작품 상태를 전하며, 독일판에는 작곡가가 다시 손본 최종 단계가 반영되었다 . 오늘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신베토벤전집 III/3은 자필 총보와 두 초기 인쇄 계통을 대조한다. 1810~11년에 나온 것은 독주부와 관현악 파트이며, 관현악 총보의 초판은 1857년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에서 출판되었다.

"Emperor"의 명명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의 피아니스트 겸 출판인 요한 밥티스트 크라머와 연결하는 설, 조지 그로브와 연결하는 설명, 빈 공연장의 감탄에서 나왔다는 일화가 서로 엇갈린다. 어느 쪽도 베토벤 자신의 제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별칭은 후대 영어권 수용에서 굳어진 이름이다.

초기 공연 기록은 공개 여부에 따라 나뉜다. 현재 알려진 최초 공연은 1811년 1월 13일 로브코비츠 궁의 비공개 음악회이며, 헌정자인 루돌프 대공이 독주했다. 최초로 확인된 공개 공연은 같은 해 11월 28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렸고,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독주했다. 빈의 첫 공개 공연은 1812년 2월 12일 카를 체르니가 맡았다. 따라서 라이프치히 공연은 '세계 초연'이 아니라 '최초로 확인된 공개 공연'으로 구분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약 36~40분이다. 악장별 시간은 다음과 같다.

- **I. Allegro:** 약 19~21분
- **II. Adagio un poco moto:** 약 8분
- **III. Rondo. Allegro, ma non troppo:** 약 10분

둘째 악장과 셋째 악장 사이에는 휴지가 없다. 템포와 프레이징에 따라 전곡 시간에는 몇 분의 차이가 난다.

편성

- 독주 : solo piano
- 목관 :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 금관 : 2 horns, 2 trumpets
- 타악기 : timpani
- 현악 : strings

기준판의 세부 표기는 클라리넷이 기본적으로 B♭관, 호른이 E♭관, 트럼펫이 E♭관이며, 팀파니는 E♭–B♭으로 조율된다. 둘째 악장에서는 제 1클라리넷이 A관, 호른이 D관으로 바뀐다. 제 2플루트·제 2클라리넷·트럼펫·팀파니는 쉬고, 약음기를 낀 현악과 축소된 관악 편성이 독주 피아노를 둘러싼다. 이 편성 축소는 B장조의 둘째 악장과 E♭장조 바깥 악장 사이의 음색 차이를 악보에 명확히 만든다.

악장별 정보

I. Allegro

E♭장조의 첫 악장은 581마디이며 약 19~21분 걸린다. 관현악이 화음을 울릴 때마다 피아노가 아르페지오, 트릴, 음계형 패시지로 응답하는 세 차례의 교대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즉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음표가

모두 기보되어 있다. 뒤이어 관현악 제시부가 놓이고, 독주 피아노가 다시 들어올 때에는 시작부의 음량을 반복하지 않고 주제를 낮은 음량으로 제시한다. 피아니스트 피에르로랑 에마르는 이 대비를 시작의 세 패시지에 이은 ‘두 번째 놀라움 ’으로 설명했다.

악장 후반의 카덴차 자리에서 베토벤은 Non si fa una Cadenza, ma s’attacca subito il seguente. 라고 썼다. 별도의 자유 카덴차를 연주하지 말고 다음에 기보된 구절로 곧장 이어 가라는 지시다. 이 문구는
클레멘티의 이른 런던판에는 없고, 독일판을 위한 마지막 수정 단계에서 들어갔다. 따라서 이 악장에 ‘카덴차가 없다 ’고 하기보다, 즉흥 카덴차의 자리를 작곡된 패시지 안에 통합했다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II. Adagio un poco moto

B장조의 둘째 악장은 82마디이며 약 8분 걸린다. 자필보 ·초기 필사본 ·초판과 신베토벤전집은 속도말을
Adagio un poco moto 로 적는다. 여러 후대 판본과 음반에서 쓰는 mosso 는 원전 계통의 표기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음 현악이 주제를 내놓고, 축소된 관악기와 피아노가 이어받는다 . 첫 악장에서 쓰인 제 2플루트 ·제 2클라리넷 · 트럼펫 ·팀파니가 빠지므로, 단순히 연주 음량을 줄이는 것과 다른 편성상의 변화가 생긴다. 피아니스트 드니 코주힌은 첫 악장 뒤에 오는 이 악장의 조성과 성격의 전환을 작품에서 특히 인상적인 순간으로 꼽았다.

악장 끝에서 바순의 B음이 B♭으로 내려가고 호른이 이를 이어받으면서 E♭장조의 딸림음이 준비된다. 피아노는 아직 느린 박자 안에서 다음 론도 주제의 윤곽을 조용히 예고한다. 이 대목은 완전히 끝난 느린 악장 뒤에 새 악장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 주제가 속도와 기능을 바꾸며 피날레를 시작하게 한다.

III. Rondo. Allegro, ma non troppo

E♭장조의 셋째 악장은 431마디이며 약 10분 걸린다. 둘째 악장 끝에서 예고된 리듬이 원래 속도로 바뀌며 론도 주제를 이룬다. 피아노가 주제를 먼저 내놓고 관현악이 응답하며, 주제의 귀환 사이에 독주 패시지와 관현악 대화가 배치된다.

종결부에서는 팀파니가 피아노와 조용히 주고받는 구절이 마지막 전합주에 앞선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팀파니스트 조본 길리엄은 이 대목에서 독주자마다 원하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에마르
역시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피아노가 반주하고 팀파니가 부각되는 조용한 카덴차로 이 부분을 들었다.
피날레의 끝을 큰 음량만으로 밀어붙이면 이 역할 교환이 흐려질 수 있다.

독주와 합주의 균형

이 작품의 독주부는 처음부터 전면에 나오지만, 계속 관현악 위에 머물지는 않는다.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는 독주자가 영웅적인 전면에 섰다가 실내악적인 틀 안으로 사라지는 두 면을 균형 있게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악보에서도 피아노는 시작부의 화려한 패시지, 독주 제시부의 낮은 음량, 목관과의 대화, 피날레 끝의
팀파니 반주 사이를 오간다.

모든 대목에 같은 중량을 주면 작품의 음량과 역할 변화가 평평해진다 . 첫 화음 뒤 피아노 패시지는 자유롭게 들리면서도 관현악의 화음과 한 호흡을 이루고, 독주 제시부의 조용한 진입은 앞선 화려함과 뚜렷이 갈려야 한다. 둘째 악장 끝에서는 B장조의 종지감을 남긴 채 론도 주제의 윤곽이 생기도록 호흡을 맞춘다. 피날레 끝의 피아노와 팀파니는 낮은 음량을 지켜야 이어지는 전합주와 대비된다.

미츠코 우치다는 협연을 미리 고정한 독주 해석의 재생으로 보지 않고, 연주자와 피아노, 홀에서 들리는 소리에 맞춰 계속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관현악의 첫 E♭장조 화음이 울리기를 기다린 뒤 거기서 독주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첫 패시지의 강도와 페달도 그날의 화음 길이와 잔향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주요 레코딩

Artur Schnabel / London Symphony Orchestra / Malcolm Sargent — HMV, 1932: 1932년 3월 24일 애비 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전전기 상업 녹음이다. 슈나벨의 HMV 베토벤
협주곡 사이클에 속하며, 20세기 전반의 베토벤 연주를 이후 녹음과 비교할 수 있는 역사 자료다. Leon Fleisher / Cleveland Orchestra / George Szell — Epic, 1961: 셀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스테레오 베토벤 협주곡 사이클에 속한다. BBC Music Magazine의 해당 글은 이
녹음을 필자의 스테레오 시대 선호반으로 꼽았고, Washington Post는 과거의 기념비적 연주
양식을 설명하는 대표 사례로 들었다. 단단한 박과 관현악의 중량을 앞세운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Arturo Benedetti Michelangeli / Wiener Symphoniker / Carlo Maria Giulini — Deutsche Grammophon, 1979년 공연 녹음 ·1987년 발매: 넓은 시간을 쓰면서도 관현악의 진행을 유지하는 녹음이다. Gramophone Classical Music Guide는 시작 패시지 뒤 긴 형식을
내다보는 진행과 독주 음색이 관현악에 맞물리는 방식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Steven Lubin / Academy of Ancient Music / Christopher Hogwood — L’Oiseau-Lyre, 1988: 고악기로 녹음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의 초기 사례다. 루빈은 이 작품의 높은 음역과 바깥 악장에서 소리가 잘 뻗도록 포르테피아노 고음을 더 밝게 보이싱했다고 밝혔고, 호그우드는 현악 연주자 44명을 기용했다. 현대 피아노보다 빠른 감쇠, 그리고 독주와 관현악
사이의 음량 비례를 들려준다.
Leif Ove Andsnes / Mahler Chamber Orchestra — Sony Classical, 2014: 안스네스가 피아노에서 지휘한 프라하 루돌피눔 실황으로, 4년에 걸친 The Beethoven Journey 의 마지막
음반에 수록되었다 . 대편성의 중량보다 독주자와 실내 관현악이 서로 반응하는 현대적 합주 방식을 비교하기에 알맞다.

주요 자료

Beethoven-Haus Bonn 작품 페이지 — 작곡 시기, 헌정, 자필 ·초기 인쇄 자료

Beethovens Werkstatt: Op. 73 — 스케치 ·수정 단계와 클레멘티 ·브라이트코프 판본의 관계

베를린 국립도서관 자필 총보 — Mus. ms. autogr. Beethoven, L. v. 15

G. Henle Verlag, 신베토벤전집 III/3 및 HN 637 서문 — 기준 비평판과 카덴차 지시, 초기 판본

Gewandhausorchester의 베토벤 연주사 — 1811년 라이프치히 공개 공연

Cleveland Orchestra 작품 해설 — 편성, 소요 시간, 악장 연결

Washington Post, 연주자 인터뷰 — 피에르로랑 에마르, 조본 길리엄 등의 구조 ·합주 발언

Philharmonia, Denis Kozhukhin 인터뷰 — 피아노와 관현악의 관계, 둘째 악장에 대한 관점

Paul Lewis 인터뷰 — 독주와 실내악적 합주의 균형

WCRB, Mitsuko Uchida 인터뷰 — 첫 화음과 현장 음향에 따른 독주 진입

Artur Schnabel Foundation 디스코그래피 , Library of Congress의 Leon Fleisher 디스코그래피 , Deutsche Grammophon의 Michelangeli/Giulini 음반 — 역사 녹음의 세션과 발매 정보 Christopher Hogwood 공식 녹음 목록, Los Angeles Times의 Lubin/Hogwood 인터뷰 ·비평, Mahler Chamber Orchestra: The Beethoven Journey — 고악기 전곡 녹음과 피아노 지휘 실황